

빈곤노인의 경제활동 결정요인 연구

Determinants of the Economic Activity of the Poor Elderly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 교 수 이 성 은*

Dept. of Social Welfare, Pusan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Lee, Sungeun

〈 목 차 〉

I. 서론	IV. 결과 및 해석
II. 이론적 배경	V. 요약 및 결론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determining the participation of the poor elderly in economic activity. This study analyzed secondary data of the second wave of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Binary logistic regression was used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are associated with the economic activity of the poor elderly. The results of the analyses showed that age, gender, region, public assistance, education, health status, chronic illness, contacts with acquaintances, and support from children were associated with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y. The study's findings have several implications for policies and services. The study identified the need for an age- and gender-specific approach to promoting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y among the poor elderly. Regional differences should also be considered in the creation of work opportunities for older adults. In terms of human capital, the positive effect of good health indicates that strategies are needed to address the needs of older adults with health issues. In addition, there is a need for more jobs for elderly job seekers with high levels of education. Finally, policy makers and practitioners should explore interventions for enhancing the social network involvement and community support for the elderly living in poverty.

* 주저자: 이성은(lees@pusan.ac.kr)

Key Words : 빈곤노인(elderly in poverty), 경제활동(economic activities), 인적자본(human capital), 사회적 관계망(social networks),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I. 서론

우리나라는 수명연장과 저출산으로 인한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2012년 현재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11.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24.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통계청, 2012). 이러한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노인의 빈곤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OECD의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5.1%로 OECD 국가의 평균 노인빈곤율인 13.5%를 훨씬 웃돌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을 보여주고 있다(OECD, 2008).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응답한 생활상에서 겪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도 경제적 어려움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통계청, 2012). 또한 ‘노후난민’에 대한 우려를 다룬 기사 등이 주요 언론에 자주 등장하며 노인빈곤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헤럴드경제, 2012-8-10).

그러나 높은 노인빈곤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9.4%로 OECD 국가 중 비교적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이고 있다(통계청, 2011a). 이는 국민연금제도가 아직 충분한 성숙기에 접어들지 않았고 그 외의 노인의 소득을 보장할만한 사회보장 대책이 미비한 시점에서 경제활동 참여는 빈곤노인을 포함한 많은 노인들에게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는 점으로 일부 설명될 수 있다.

노인빈곤 문제의 완화를 위해 기초노령연금의 도입 등 사회적 대책도 마련되고는 있으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빈곤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빈곤노인 소득보장제도라 할 수 있는 공공부조에서 제외되는 노인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최희경, 2004). 이와 같이 현재의 공적 소득보장제도가 노인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에 미비한 실정임을 고려할 때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창출의 중요성은 빈곤노인의 경우 비빈곤노인보다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취약성은 노인 경제활동의 주된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2012년 고령자통계에 의하면 취업을 희망하는 주된 이유가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때문으로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무료함 해소 또는 건강유지 등의 비경제적 이유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통계청, 2012). 또한 서울시 노인취업훈련센터 구직 신청자 중 경제적 이유로 취업을 원하는 경우가 약 92%에 달한 반면 자기발전 등의 이유는 약 6%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세계일보, 2012-6-28). 빈곤과 같은 경제적 취약성이 노인 경제활동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빈곤노인의 경제활동은 빈곤하지 않은 노인에 비해 더욱 시급히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빈곤노인의 경우 인적자본이나 사회적 관계망 등 다양한 측면에서 빈곤하지 않은 노인에 비해 열악한 조건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박미은, 2004; 박정숙·이혜란, 2003; 장경은, 2009; 최희경, 2004), 이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데는 더욱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측면에서 빈곤노인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

다. 즉 빈곤노인의 어떠한 측면들이 이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를 파악하고 정책 및 서비스 방향에 대한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노인의 경제활동과 관련해 다수의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전체 노인을 하나의 집단으로 규정하고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이며(라진구, 2009; 성지미·안주엽, 2006; 심영호, 2010; 엄동욱, 2008), 빈곤노인을 특정대상으로 구분하여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경제적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취약성을 가지는 노인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은 취업과 관련한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들을 통합하여 경제활동 결정요인을 살펴볼 경우 빈곤한 상태에서 어떠한 요인들이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포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빈곤노인의 경우 인적자원과 사회적 관계망에서 비빈곤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성을 보이는 연구들도 제시되고 있어(박미은, 2004; 박정숙·이혜란, 2003; 장경은, 2009; 최희경, 2004), 이러한 요인들이 빈곤노인의 경제활동에 기존의 전체노인과 동일하게 또는 다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노인집단 중 사회적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노인계층이라 할 수 있는 빈곤노인 집단을 별도의 대상으로 경제활동과 관련된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 모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빈곤노인의 경제활동에 초점을 두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빈곤노인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이론과 선행연구들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인적자본요인과 사회적 관계망 요인이 빈곤노인의 경제활동참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빈곤노인

빈곤노인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정의하고 있다. 차상위계층 이하의 노인으로 정의하는 경우도 있으며(최희경, 2004),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노인(오인근, 2009),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장경은, 2009), 전체 가구소득의 60% 이하의 노인(김동배·박은영, 2007) 또는 가구균등화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노인(권현수, 2009; 금재호·김승택, 2001; 배성우·손지아·박순미, 2008; 백학영, 2010; OECD, 2008)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OECD(2008)에 의하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5.1%로 전체 빈곤율인 14.6%의 약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백학영(2010)의 연구에서는 전체 노인가구 중 약 53.2%가 빈곤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가구의 빈곤율인 20.4%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김동배와 박은영(2007)의 연구에서도 전체 여성노인 중 65.8%가 빈곤노인인 것으로 나타나 노인빈곤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노인이 되면 노동시장 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게 되는 경향을 보이는데(김안나, 2007), 이러한 사회적 배제는 소득 창출의 기회를 더욱 협소하게 함으로써 다른 연령층에 비해 노인빈곤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젊은 연령층에 비해 노인은 소득의 감소를 대체하거나 회복할 대안이 훨씬 부족하기 때문에 노인빈곤의 경우 대상자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중대하다고 할 수 있다(Hurd, 1990).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은 빈곤에 매우 취약한 집단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 연구들이 노인가구의 빈곤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음을 보여

주고 있다. 박능후(2005)의 연구는 노인가구의 경우 비노인가구보다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이 모두 높게 나타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석상훈과 김현수(2012)의 연구 역시 가구주의 연령이 60대가 넘어가면 빈곤율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함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노인가구의 경우 비노인가구에 비해 높은 빈곤진입률을 보이는 것과 동시에(박능후·송미영, 2006), 빈곤탈출률은 낮은 반면 빈곤에 재진입하는 경향이 강해 장기 빈곤층을 형성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구인회, 2005). 구인회(2005)는 이러한 노인가구 빈곤의 지속성의 원인으로 노인가구의 저학력과 여성노인의 비중이 높음을 지적하고 있다.

빈곤율이라는 수치적 특성과 함께 빈곤노인과 관련된 연구들은 빈곤노인은 비빈곤노인에 비해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보다 취약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빈곤노인 가구와 비빈곤노인 가구를 비교한 하지경(2010)의 연구에 의하면 빈곤노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적음은 물론 지출에 있어 식비, 주거 및 광열수도비, 보건의료비 등 필수재 성격의 항목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비빈곤노인 가구의 경우는 피복비, 교통비, 문화생활비 등의 항목이 빈곤노인 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백학영(2010)의 연구 역시 노인가구의 소비특성이 빈곤지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면서 빈곤노인 가구의 경우 의식주와 보건의료비와 같은 필수재 위주의 소비행태가 이루어짐을 보고하고 있다. 이는 빈곤노인이 비빈곤노인에 비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일상생활에 더욱 심각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빈곤노인은 인적자원 보유의 측면에서도 취약성을 보이는데, 배성우 외(2008)의 연구는 빈곤노인의 약 77.1%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희경(2004)의 연구 역시 빈곤노인의 대부분이 초등학교 이하의

저학력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순돌(2004)의 연구에 의하면 빈곤노인의 약 71.1%가 무학으로 나타나고 있어 빈곤노인의 학력수준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건강상태에 있어서도 박정숙과 이해란(2003)의 연구는 일반노인과 비교 시 빈곤노인의 경우 지각된 건강상태가 더욱 낮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노인은 은퇴로 인해 사회적 관계망이 은퇴 이전에 비해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빈곤노인의 경우 가족관계의 단절 및 해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의 제약 등으로 인해 노화과정에서 겪는 부정적 경험의 정도가 비빈곤노인에 비해 더욱 심화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장경은, 2009). 빈곤노인가구의 경우 노인 단독가구 비율이 47.4%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전체 노인가구 중 노인 단독가구의 비율인 7.4%의 6배를 넘어설 정도로 빈곤노인의 가족 지지체계망이 약함을 보여주고 있다(최희경, 2004). 이러한 이유로 저소득 독거노인의 경우 가족을 통한 부양체계가 취약함으로 인해 생활유지를 위해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백학영, 2006). 가족관계의 약화 외에도 빈곤노인의 경우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사회활동 참여가 미흡할 수 있으며 타인들과의 관계망 형성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상대적 취약성으로 인해 빈곤노인은 비빈곤노인에 비해 전체적인 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김태현·김동배·김미혜·이영진·김애순, 1998), 경제적으로 빈곤한 노인일수록 성공적 노후 유형에 속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미혜·신경림·최혜경·강미선, 2006). 이와 같이 빈곤노인은 일반노인보다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취약한 집단으로 경제활동참여를 포함해 이들의 빈곤완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2. 노인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이론

노인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이론으로는 대표적으로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을 들 수 있다. Becker(1964; 라진구, 2009)에서 재인용)에 의해 발전된 인적자본이론은 노동공급의 측면에서 취업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개인의 생산성이 임금과 고용형태를 결정하며 교육이나 훈련 등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생산성의 질적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는 이론이다(라진구, 2009). 즉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많을수록 생산력이 향상되며 이는 더 높은 소득을 가지는 직업과 연결된다는 것이다(김화순, 2009). 인적자본의 대표적 유형으로는 신체적 건강, 학교교육이나 직업 훈련 등 공식적, 비공식적 교육을 통한 지식, 직무에 필요한 기술 등이 제시되고 있다(Schultz, 1961). 이러한 요소들은 생산성의 지표로서 노동력 공급자들의 취업 및 취업직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식이나 기술과 같은 인적자본은 노년기에 경제적 활동을 통해 노후 소득보장을 가능케 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서지원, 2009). 인적자본이론에 의하면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과 같은 인적자원과 노인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 간의 괴리가 크다는 점에서 노인 경제활동참여 가능성의 상대적 취약성을 설명할 수 있다(손지아·박순미, 2011). 우리나라 노인의 경우 학력수준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11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무학 및 초등학교 졸업의 학력이 전체노인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다(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인적자본의 하나로 간주되는 건강의 경우도 대부분의 노인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약 88.5%의 노인이 적어도 하나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이러한 인적자본이 노인의 노동시장 진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국외연구의 경우 노인의 학력이 경제활동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제시되기도 하며(Alavinia & Burdorf, 2008; Copeland, 2010), 국내연구의 경우 학력이 노인의 취업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으나(박점숙, 2004; 문영미, 2005), 교육수준이라는 인적자본이 노인의 취업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김양수, 2007; 라진구, 2009). 따라서 인적자본이론이 노인의 경제활동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Lin은 인적자본이론과 구별되게 사회관계망이론(social network theory)을 제시하며 사회적 관계망 속의 자원이 취업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Lin, 1999). 먼저 사회적 관계망은 정보의 흐름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즉 취업과 같이 개인이 포착할 수 있는 기회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사회관계망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Lin, 1999). 이는 일반적으로 정보를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알고 있는 경우 개인적으로 정보를 탐색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Burt, 1997; 박세경·김형용·강혜규·박소현, 2008)에서 재인용). 개인적 인맥을 활용해 취업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사람의 경우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취업의 시기와 직장선택에 있어 유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는 것이다(금재호, 2002).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취업하고자 하는 자의 비공식적 정보를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파악할 수 있으므로 채용이 용이해질 수 있다(김성훈, 2003). 다음으로 사회적 관계망은 사회적 유대를 통해 고용을 결정하는 주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회적 관계망과 개인과의 관계는 조직에게 하나의 사회적 보증으로 인식됨으로써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Lin, 1999).

사회적 관계망은 여러 연구에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물질적, 정신적, 신체적 지지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일상생활에서의 상호 유대관계로 요약할 수 있다(오인근·오영삼·김명일, 2009). 취업과 관련된 사회적 자본은 개인적 자본과 제도적 자본을 모두 포함하는데, 개인적 자본은 주로 가족과 같은 비공식적 관계망을 기반으로 하며 제도적 자본은 학교나 직업훈련 기관 등 제도에 소속된 제도 속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한다(박현순·나동석, 2009). 또한 사회적 관계망은 크게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구조적 측면은 주로 관계망의 양적 특성을 의미하며 사회적 관계망 내 구성원의 수와 같은 관계망의 크기와 구성원 간의 접촉빈도로 표현된다(오인근 외, 2009; 정순돌·문진영·김성원, 2010). 한편 사회적 관계망의 기능적 측면은 관계망의 질적 특성을 의미하며 관계망 내의 구성원들과의 지지의 교환 및 관계의 질에 대한 만족도 등으로 표현된다(Antonucci, 1985; O'Reilly, 1988; 장수지, 2010에서 재인용).

사회적 관계망은 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관계망의 크기가 클수록 취업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는 관계망의 크기가 클수록 일자리에 대한 정보 및 구인자를 구직자와 연계시켜줄 수 있는 잠재적 자원의 용량이 커지기 때문이다(Reingold, 1999).

사회적 관계망은 노인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가족은 노인에게 있어 물질적, 도구적, 정서적으로 지지와 도움을 제공하는 일차적 집단이라 할 수 있다(곽인숙, 2011). 2011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정서적 지원이나 도구적 지원보다 경제적 지원의 경우 상호교환의 형태 보다는 자녀로부터 노인이 지원받는 방향의 교환형태가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약 70% 이상의 노인들이 자녀로부터 현금이나 현물 등 경제적 지원을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다(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특히 고선강(2011)의 연구는 부모의 경제적 상태가 나쁘다고 인식할수록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의 경향이 높아짐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자녀의 경제적 지원은 노인의 가용자원에 영향을 줌으로써 노인이 취업을 결정하는데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혈연관계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 역시 사회적 접촉을 통해 취업 기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또는 취업을 직접 요청받을 수도 있으며 개인적 친분에 의한 의뢰 및 소개 등을 통하여 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Reingold(1999)는 관계망의 구성에 있어 가족과 같은 사적인 친밀한 관계 보다는 이웃과 같이 가족보다 비교적 유대관계가 약한 관계망이 구직자가 기존에 인지하고 있는 영역보다 확장된 영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비공식적인 취업 정보 등을 제공함에 있어 더 나은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고 제시하였다.

사회적 관계망 이론은 특히 빈곤노인의 경제활동을 설명하는데 보다 적합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김성훈(2003)의 연구에 의하면 취업시장에서 비교적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 연결망을 더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수익과 같은 사회경제적으로 높은 보상을 받는 직업을 탐색하는 사람들의 경우 사회적 관계망보다는 취업에 있어 공식적인 경로를 통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김성훈, 2003). 또한 저임금 비숙련 노동자들이 주로 진입하는 노동시장의 경우, 경제활동 기회가 협소한 것에 비해 구직자의 수가 많음으로 인해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구직자를 찾을 수 있는 비공식적 소개와 같은 방식을 선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Reingold, 1999).

3. 노인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빈곤노인을 구체적 대상으로 경제활동을 다루고 있는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일반적인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노인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여러 변인들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요인 가운데 연령은 노인의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취업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김양수, 2007; 라진구, 2009; 백선희, 2011; 이재영, 2006), 연령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다(김중향, 2011). 성별로는 남성일 경우 여성보다 취업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며(김양수, 2007; 라진구, 2009; 백선희, 2011; 이재영, 2006), 성별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한다(김중향, 2011; 이미순, 2006). 또한 거주 지역도 노인의 취업과 연관되는 변수로 나타나고 있는데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노인의 취업가능성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양수, 2007; 심영호, 2010). 이 외에도 김동배와 박은영(2007)의 연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여부가 경제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같은 빈곤노인일지라도 수급자 빈곤 여성노인의 경우 경제활동참여율이 비수급 빈곤노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인적자본의 특성으로 교육수준, 건강, 직업훈련 등이 노인의 취업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의 가능성이 높아짐을 보고한 연구도 있는 반면(박점숙, 2004; 문영미, 2005), 교육수준의 증가와 취업의 부적 관계를 보고한 연구도 있으며(김양수, 2007; 라진구, 2009),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김중향, 2011). 또한 비공식적 교육인 직업훈련을 이수한 경우 취업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

진구, 2009; 문영미, 2005). 한편 노인의 건강상태는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로 일반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취업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문영미, 2005; 백선희, 2011; 이재영, 2006).

셋째, 개인의 인적자원 뿐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망 역시 취업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김중향, 2011). 노인의 취업과 사회적 관계망을 다룬 연구는 많지 않은데 소수의 연구가 사회적 관계망과 중고령자 취업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있다. 중고령자 또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 배우자가 있을 경우 무배우자인 경우에 비해 취업의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백선희, 2011; 엄동욱, 2008; 황희숙·김윤재, 2011). 자녀와의 동거는 가용자원의 확충으로 인해 노인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이미진·이용우, 2008)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나 자녀와의 동거가 노인의 취업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고도 존재한다(허준수, 2006).

이러한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가 클수록 취업의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김중향, 2011; 문영미, 2005),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관계망 내 접촉빈도는 취업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김중향, 2011), 또는 이웃과의 접촉빈도가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한다(백선희, 2011). 사회적 관계망의 기능적 특성인 관계망으로부터 얻는 지원이 노인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자녀로부터 제공되는 지원이 노인의 재정적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 결정과도 관련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자녀로부터 제공되는 정보적, 도구적 지지 등이 취업기회에 대한 정보제공의 통로로 이용됨으로써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 확률을 높일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앞서 제시된 이론들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구성하여 빈곤노인의 경제활동참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연령, 성별, 거주 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경제적 스트레스를, 인적자본 요인으로 교육수준, 주관적 및 객관적 건강상태를, 사회적 관계망 요인으로 구조적 요인인 배우자 유무, 동거자녀 유무, 비동거 자녀와의 접촉 빈도 및 친한 사람들과의 접촉빈도를, 사회적 관계망의 기능적 요인으로는 자녀로부터의 지원을 포함시켰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2008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2006년 제1차 조사를 통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지역에 거주하는 만 45세 이상의 중고령자 10,254명을 패널로 구축하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09). 빈곤노인은 연구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본 연구는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한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을 빈곤노인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중위소득을 이용한 구분은 사회복지급여 대상자 선정기준과 같이 빈곤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서(성준모, 2011), OECD의 경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국제적 비교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의 다수의 선행연구들도 이와 같은 기준을 빈곤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권현수, 2009, 금재호·김승택, 2001; 백학영, 2010; OECD, 2008). 2008년 통계청의 전체가구 균등화 중위소득(가처분소득)은 1,450,851원이며(통계청,

2008), 이에 따라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균등화 소득 725,426원 이하의 노인을 빈곤노인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제2차 고령화연구패널의 65세 이상 노인 4,040명 중 59.3%에 해당하는 2,396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측정도구

1) 종속변수: 경제활동참가

경제활동참가 여부는 현재 일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을 이용하였으며 경제활동 ‘1’과 비경제활동 ‘0’으로 부호화하였다. 경제활동에는 현재 노동을 하고 있으며 타인 또는 회사에 고용되어 임금을 받고 일하는 임금근로, 자영업,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가 포함된다.

2) 독립변수

(1) 통제변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노인의 취업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변수들을 통제하였다. 연령은 설문응답 당시의 연령을 사용하였으며 성별은 남성은 ‘1’, 여성은 ‘0’으로 부호화하였다. 거주 지역은 대도시의 경우 ‘1’, 기타 ‘0’으로 부호화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의 경우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를 묻는 문항을 이용해 수급자일 경우 ‘1’, 아닐 경우 ‘0’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경제적 불만족도를 0-100까지 점수로 나타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경제적 스트레스의 경우 ‘모르겠음’으로 응답한 1건의 사례는 평균으로 대체하여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인적자본 요인

교육수준은 최종학력으로 초등학교 졸업이하 '0', 중학교 졸업이상 '1'로 부호화하였다. 건강상태는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 측면 모두를 포함하였으며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본인 스스로 느끼는 건강상태를 '매우 좋음(1점)'부터 '매우 나쁨(5점)'의 척도로 측정하고 있으며 재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음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건강상태의 보다 객관적 측면을 반영하기 위해 만성질환 여부를 활용하였으며 만성질환으로 간주되는 고혈압, 당뇨병, 만성 폐질환, 만성 간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관절염 또는 류마티스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만성질환으로 인해 현재 약을 복용하고 있거나 치료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를 '1'로,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부호화하였다.

(3) 사회적 관계망 요인

사회적 관계망은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을 포함하였다. 구조적 측면은 배우자 유무, 동거 자녀 유무, 비동거 자녀와의 접촉빈도, 친한 사람들과의 접촉빈도로 구성하였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1', 없는 경우 '0'으로 구분하였으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혼, 사별/실종, 미혼, 별거가 포함된다. 동거자녀의 경우 동거하고 있는 자녀가 있을 경우 '1', 없을 경우 '0'으로 구분하였다. 비동거 자녀와의 접촉빈도는 첫 번째 자녀부터 열 번째 자녀까지 자녀와의 직접 만남을 '거의 매일 만남'부터 '만나지 않음'까지 응답하게 되어있다. 해당 자녀와의 접촉빈도에 대해 '모르겠음'으로 응답한 1건의 사례는 '만나지 않음(0)'으로 처리하였다. 본 연구는 응답범주를 0부터 9까지로 재코딩하여 합당한 점수를 사용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접촉빈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친한 사람들과의 접촉빈도는 친구나 이웃, 친척 등 친밀한 사람과의 접촉빈도를 0부터 9까지로 재코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친한 사람들과의 접촉빈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사회적 관계망의 기

능적 측면으로는 자녀로부터의 지원을 포함하였다. 자녀로부터의 지원은 첫 번째 자녀부터 열 번째 자녀까지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인 금전적 지원 또는 정기적인 비금전적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를 측정하였으며 열명의 자녀로부터의 지원의 총합을 사용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자료의 오류 검토 작업을 거친 후 SAS 9.1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여부를 VIF와 Tolerance 값을 이용해 점검하였으며 다중공선성 문제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다(Allison, 1999, p.50). 다음으로 본 연구의 대상자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빈곤노인의 경제활동참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1>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연령의 경우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73.9세로 나타났으며, 남성이 41.0%, 여성이 59.0%를 차지하여 여성의 비율이 약간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거주 지역의 경우 38.9%가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8.7%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나타났으며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경제적 스트레스는 0-100점의 응답범위에서 평균 59.5점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74.6%를 차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평균 (표준편차)	N (N=2,396)	%	
연령		73.9(6.3)			
통제변수	성별(1=남성)		982	41.0	
	거주 지역(1=대도시)		932	38.9	
	기초생활보장수급(1=수급)		209	8.7	
경제적 스트레스		59.5(21.4)			
인적자본	교육수준(1=중학교 이상)		609	25.4	
	주관적 건강상태	2.5(.9)			
	만성질환(1=있음)		1,419	59.2	
독립 변수	사회적 관계망	배우자 유무(1=있음)	1,577	65.8	
		동거자녀 유무(1=있음)	517	21.6	
		비동거 자녀 접촉빈도	13.6(7.9)		
		친한 사람들 접촉빈도	6.7(2.8)		
		자녀로부터의 지원	3.0(2.7)		
종속변수	경제활동참가(1=참가)		496	20.7	

지해 연구대상자의 학력이 전반적으로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1-5점의 응답범위에서 평균 2.5점으로 연구대상자가 평균적으로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나쁜 편이다”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59.2%는 적어도 한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의 경우 65.8%가 유배우자로 나타났다으며 21.6%는 자녀와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동거 자녀와의 접촉빈도는 0-90점의 응답범위에서 평균 13.6점으로 나타났으며 친한 사람들과의 접촉빈도는 0-9점의 응답범위에서 평균 6.7점으로 나타났다. 자녀로부터의 금전적, 비금전적 지원의 경우 0-30점의 응답범위에서 평균 3.0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속변수인 경제활동참가의 경우 연구대상자의 20.7%가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빈곤노인의 경제활동참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빈곤노인의 경제활동참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은 $p < .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으며($\chi^2=386.59$, $df=13$), 모형은 약 23.3%(Nagelkerke $R^2=.233$)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노인의 경제활동참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통제변수 가운데 연령은 빈곤노인의 경제활동참가와 부적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는데(김양수, 2007; 라진구, 2009; 백선희, 2011; 이재영, 2006), 연령의 증가에 따른 신체적 능력이나 새로운 기술 습득 능력의 쇠퇴가 경제활동참가 확률의 저하와 연관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연령의 증가에 따라 신체적 기능의

쇠되거나 일상생활 능력의 약화와 같은 신체적 노화가 동반되며(권중돈, 2009, p.49), 기억력, 정보처리 속도, 문제해결 능력과 같은 인지기능 역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저하되는 경향을 보인다(Deary et al., 2009; Edwards, 2002). 이러한 신체적, 인지적 노화는 경제활동참가에 관한 노인의 심리적 동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데 2011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로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또한 허준수(2006)의 연구 역시 연령이 높을수록 노인들의 취업에 대한 의향이 낮은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생산성의 저하와 같은 고령자에 대한 고용주의 부정적 인식도 연령 증가와 경제활동참가의 부적 관계를 설명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김동선·모선희, 2011). 성별의 경우 빈곤노인의 경우도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경제활동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노인의 경우 인적자본의 상대적 취약성과 성차별적인 노동시장 환경으로 인해 경제활동의 기회가 더욱 제한됨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금재호, 200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이해리, 2005). 거주 지역에 있어서는 대도시에서 거주할 경우 빈곤노인의 경제활동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은 경향을 보였다. 대도시의 청년 실업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을 고려할 때(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8),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우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장년층과 일자리에서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 또한 대도시의 산업구조나 기술적 측면의 변화가 더욱 급격하므로(김경휘, 2011) 이로 인해 노인의 경제활동 기회가 더욱 협소해 질 수 있다. 또한 노년기의 경제활동이 농림어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이소정, 2012), 농업이나 어업 등의 근로기회가 비교적 열려있는 농촌지역에 비해 대도시의 경우 빈곤노인이 취업할 수 있는 노동

시장의 형성 정도가 약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강현정과 김윤정(2011)은 전체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근로배제의 가장 강력한 예측요인으로 거주 지역을 지적하며 노인이 도시에 거주할 수록 근로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경제적 스트레스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소정(2012)의 연구에 의하면 저소득 노인의 경우 생계비를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고소득층 노인의 경우 경제활동의 목적으로 용돈이나 건강관리 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빈곤노인의 경우 일반노인에 비해 경제활동에 있어 생계유지 수단으로서의 절박성이 보다 강할 수 있으므로(김경휘, 2011), 본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경제적 만족 또는 불만족감이 경제활동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보장수급의 경우 수급자일수록 경제활동 가능성이 낮아졌는데 이는 김동배와 박은영(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관점함에 있어 64세 이하의 자로 연령의 범위를 제한함에서 알 수 있듯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 1항), 수급자 노인의 경우 이들의 근로능력의 미약함이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수급자의 경제활동참가 확률이 낮은 것은 수급자 노인의 근로능력이 취약함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근로의욕 저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인적자본요인으로서 교육수준의 경우 경제활동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노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도 유사한데(김양수, 2007; 라진구, 2009; 이소정, 2012),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들에 비해 저학력 노인들의 경우 소득을 위한 경제활동의 필요성이 더욱 높을 수 있다는 점(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과 함께 고령자의 고용시장이 고학력을 굳이 필요로 하지 않는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겠다(라진구, 2009). 건강상태는 일반적인 인식대로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경제활동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만성질환이 있을 경우 경제활동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대체로 일치한다(문영미, 2005; 백선희, 2011; 이재영, 2006). 이는 인적자본의 속성상 건강이 보다 높은 인적자본 보유를 상징함으로써 고용주의 입장에서 선택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고용주의 경우 고령자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건강상태를 지적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이남경, 2010). 또한 노인 입장에서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식할수록 취업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허준수, 2006),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신체적 역량의 보유와 이에 따른 심리적 요인이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

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관계망 요인 중 구조적 특성인 배우자 유무, 동거자녀 유무, 비동거 자녀와의 접촉빈도는 빈곤노인의 경제활동참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의 동거는 노인의 빈곤을 감소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나(이미진·이용우, 2008), 빈곤노인의 경우는 취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정도의 자원으로 작동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자녀 이외의 친한 사람들과의 접촉빈도가 많을수록 경제활동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관계가 빈곤노인의 경제활동참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 관계망 요인 중 기능적 특성인 자녀로부터의 지원의 경우 자녀로부터의 금전적, 비금전적 지원이 많을수록 빈곤노인의 경제활동참가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는데, 자녀로부터의 지원

〈표 2〉 빈곤노인의 경제활동참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B	Exp(B)
통제변수	연령	-.1084***	.897
	성별	.9641***	2.622
	거주 지역	-.7792***	.459
	기초생활보장 수급	-.8160**	.442
	경제적 스트레스	.0013	1.001
	교육수준	-.5260***	.591
인적자본	주관적 건강상태	.3129***	1.367
	만성질환	-.4894***	.613
독립 변수	배우자 유무	.1099	1.116
	동거자녀 유무	-.1402	.869
사회적 관계망	비동거 자녀 접촉빈도	-.0131	.987
	친한 사람들 접촉빈도	.0953***	1.100
	자녀로부터의 지원	.0553*	1.057
Goodness of Fit		X ² =386.59, p<.0001	
Nagelkerke R ²		.233	

*p<.05, **<.01, ***<.001

이 많음은 노인의 경제적 상태가 열악함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는데 하석철(2012)은 부모가 스스로 경제적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상태일수록 자녀로부터의 이전소득 가능성이 높아짐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황남희와 정주연(2009)의 연구도 60대 이상 부모의 경우 생활비 부족 경험이었을 때 자녀로부터의 사적이전 수혜가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적 취약성은 빈곤노인이 경제활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는 자녀로부터의 지원이 빈곤노인의 경제적 필요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며 사적이전 소득이 빈곤노인의 경제활동 추구를 감소시킬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결과일 수도 있다. 이승호와 구인회(2010)의 연구에 의하면 빈곤노인의 경우 자녀로부터 부양비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빈곤을 탈피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으로는 자녀로부터의 지원은 경제활동 참가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지지와도 연관될 수 있는데, 자영업자의 사회적 자본을 연구한 이성균(2006)의 연구는 창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을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본 연구대상인 빈곤노인의 경제활동 대부분이 자영업 또는 무급가족종사자라는 점에서 자녀로부터의 지원과 빈곤노인의 경제활동참가 증가와의 관련성을 추측해 볼 수 있으나 결과에 대한 보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빈곤노인의 경제활동참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적자본과 사회적 관계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먼저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일 경우, 대도시 거주일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 경우,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빈곤노인의 경제활동참가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관적 건강상태, 친한 사람들과의 접촉빈도, 자녀로부터의 지원은 경제활동참가와 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인 빈곤노인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이 20.7%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노인을 대상으로 한 2011년 노인실태조사의 경제활동참가율 34%(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와 2012년 고령자통계의 경제활동참가율 29.5%(통계청, 2012)에 비해 낮은 비율임을 보여주고 있다. 즉 빈곤노인이 전체노인에 비해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것이 더욱 어려움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과 경제활동과의 부적 관계는 연령의 증가가 노동시장에서 건강 및 새로운 기술 습득 능력의 쇠퇴 등과 같은 인적자본의 감소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활동 참여의 기회가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고령자에 대한 고용인들의 부정적 인식은 고령자 취업의 주된 제약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라진구, 2009). 노인은 업무수행 능력이 낮고 힘든 일에 부적합하며 변화되는 기술에 적응력이 낮다는 부정적 태도가 노동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다는 것이다(김동선·모선희, 2011).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생산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지만 연령과 실제 직업에서의 생산성 간에 부적 관계를 보이지 않는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구자관·박종혁, 2012). 따라서 연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고용주를 포함한 사회전반을 대상으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법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편으로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법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김동선·모선희, 2011; 정순돌·이미우, 2012). 또한 고연령일지라도 해당연령별로 직무가 가능한 다양한 직종들을 창출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업무능력의 개인차를 파악하여 노인들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령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특화된 훈련 및 지원 제공 등 노인친화적인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Warr, 1993). 이와 함께 소득의 급격한 감소를 완화하며 고령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한 점진적 은퇴나(신동균, 2009), 임금피크제의 활성화와 같이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방안들에 대한 모색도 요구된다.

둘째, 경제활동 참여에 있어 성별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여성노인의 빈곤화 현상은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김혜연·홍백의, 2009; 석상훈, 2009; 최현수·류연규, 2003). 이는 성차별적 노동시장구조와 여성노인의 인적자본의 취약성으로 일부 설명될 수 있다.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일관된 양상이 나타나는데, 2011년 60세 이상 여성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7.1%로 남성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인 50.9%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취업자의 경우 무급가족종사자에 속할 확률이 남성 고령자의 경우 약 1.7%인 것에 비해 여성 고령자의 경우 22.8%에 이르고 있다(통계청, 2011b). 또한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율이 여성의 경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기계나 조작 등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여성 고령자가 종사하는 비율은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1b). 이해리(2005)는 여성노인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령과 성의 이중차별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의 경제활동 지원에 있어 여성노인의 특수성이 보다 세심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에서도 여성노인의 특성을 반영해 상담이나 취약계층 돌봄지원 등 중고령 여성의 접근이 비교적 용이한 일자리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여성 취업지원기관에 여성노인을 위한 직업설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여성고령자의 취업을 위한 지원계획을 시행 중이다(여성가족부, 2012). 앞으로는 이러한 지원에 빈곤 여성노인의 특성을 파악하여 지원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에 빈곤 여성노인을 주요대상으로 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빈곤 여성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에 연계해 줄 수 있는 취업연계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거주 지역이 빈곤노인의 경제활동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도시에서 거주할수록 경제활동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읍면부에 거주하는 노인의 경제활동의 경우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김수정·김정석, 2011), 본 연구대상자의 경제활동유형이 대부분 자영업 또는 무급가족종사자라는 점에서 대도시에서 거주할 경우 농업이나 어업 등 노인들이 종사할 수 있는 경제활동기회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 원인 중 하나일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대도시에서 임금근로 뿐 아니라 창업지원 등 빈곤노인의 경제활동 기회를 보다 확충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도시에는 자영업 등의 경제활동 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11년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도 서울은 약 94% 가량이 공공부문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으며 시장형 등 민간 일자리는 약 6%에 불과한 반면 지방의 경우는 민간부문의 일자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1). 자영업의 경우 은퇴여부나 근로조건 등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으므로 노인이 보다 장기적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신

현구, 2008). 특히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이 노후 소득보장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엄동욱, 2008), 도시 빈곤노인의 창업 등 비임금근로 경제활동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시니어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는 있으나 연령이 40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이데일리, 2013-4-3), 빈곤상태이면서 65세 이상인 고연령 빈곤노인의 경우 통합된 교육으로는 실질적인 효과성이 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연령과 경제상태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교육수준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교육과 취업의 정적 상관관계와는 상반되는 결과로 교육 인적자본이 빈곤노인의 취업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여성노인의 학력과 취업의 부적 관계를 밝힌 이창호(2005)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즉 고학력 노인의 경우 본인의 생애에서 보다 안정적인 소득을 가진 직장을 유지해옴으로써 노인이 되었을 때 생계를 위한 소득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취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둘째는 노인이 학력에 기반한 경력을 살려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이 다양하지 못함으로 인해 고학력 노인들의 기대수준과의 불일치로 경제활동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이 빈곤노인이라는 측면에서 축적된 소득기반으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수요 측면에서의 설명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고령자의 노동시장은 전문적 기술을 요구하기 보다는 단순노동이나 생산직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구자관·박종혁, 2012; 황진수 외, 2001), 고학력이 굳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들의 인적자본이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수준에 따라 적합한 직종을 더욱 확충시키고 다양화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직업훈련

과 교육을 통해 노인들의 인적자본을 증강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직업훈련의 경우 현재 노인의 인적자본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서 제공되고는 있으나 단순노무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구자관·박종혁, 2012) 인적자본 개발 효과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취업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훈련과 연령 및 교육수준과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건강상태가 경제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신체적 조건이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건강상태가 나빠질 경우 노인에게 의료비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도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에 대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노인의 건강상태의 양상이 본인의 직무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파악하여 자기관리를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이성은, 2012).

여섯째, 사회적 관계망의 요인 중 친한 사람들과의 접촉은 빈곤노인의 경제활동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빈곤노인의 경우 친구관계 등 친밀한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으며(장경은, 2009), 활동참가나 만남을 위해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보다 취약할 수 있다. 서울지역 빈곤노인의 경우 영세민 아파트 등 저소득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취업을 위한 사회적 관계망을 스스로 형성하는 것이 어려움이 보고된 바 있다(김상호·김형수, 2003). 따라서 지역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지지체계를 활용하여 빈곤노인의 관계망을 확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저소득 노인의 경우 공적인 도움을 통한 전문적 지지가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정순돌, 2004). 특히 빈곤노인들과의 접촉이 많은 복지관이나 동주민센터 등의 재가복

지서비스를 활용하여 빈곤노인의 전반적 생활환경에 관한 심층상담 및 사례관리와 함께 직업훈련, 취업알선기관 등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며 취업을 원하는 빈곤노인들로 구성된 자조모임 등을 조직화하여 활성화시키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몇가지 제한점을 가지는데 먼저 2차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경제활동과 관련된 보다 다양한 변수들을 구체적으로 반영시키지 못했다. 또한 연구대상인 빈곤노인을 규정함에 있어 통계청의 가구균등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사용하였는데, 고령화연구패널의 가구총소득은 가구원 중 가구내 소득 및 자산에 관해 가장 잘 아는 가구원이 응답한 가구총소득으로 통계청의 소득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빈곤노인과 관련한 노동시장의 구조적 측면 등 수요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전국적 자료를 토대로 고령자를 동질적 집단으로 간주하지 않고 빈곤노인층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함으로써 노인인구 중 사회적 고위험 집단이라 할 수 있는 빈곤노인의 경제활동참가의 영향요인에 관한 이해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추후에는 빈곤노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보다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한 연구 및 경제활동 참가유무에 따른 노인의 특성 등의 비교를 통해 다각적인 관점에서 빈곤노인의 경제활동을 설명할 수 있는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1) 강현정·김윤정(2011). 노년기 사회적 배제의 실태 및 예측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9), 323-334.
- 2) 구인회(2005). 빈곤의 동태적 분석: 빈곤지속 기간과 그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57(2), 351-374.
- 3) 구자관·박종혁(2012). 고령화 사회의 고령인력 취업에 관한 연구: Field survey를 중심으로-. 기업경영연구, 44, 157-173.
-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1548&cfYd=20130701#0000>
- 5) 광인숙(2011). 노인의 자녀와의 상호간 지원 교환이 성공적인 노후생활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4), 107-127.
- 6) 권중돈(2009). 노인복지론. 서울 : 학지사.
- 7) 권현수(2009). 노인 문제음주가 우울,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빈곤노인 및 비빈곤노인 집단에 대한 잠재평균분석의 적용. 한국노년학, 29(4), 1521-1538.
- 8) 고선강(2011). 중노년기 가정의 세대 간 자원 이전: 경제자원의 효과.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1), 157-175.
- 9) 금재호(2002). 여성 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10) 금재호·김승택(2001). 빈곤의 규모와 이행과정. 연세경제연구, 8(2), 511-539.
- 11) 금재호·조준모(2000). 자영업의 선택에 관한 이론 및 실증분석. 노동경제논집, 23, 81-107.
- 12) 김경휘(2011). 노인의 고용이행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27(3), 1-34.
- 13) 김동배·박은영(2007). 여성노인의 생산적 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일반, 비수급빈곤, 수급빈곤 여성노인 집단 간 비교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38, 339-358.
- 14) 김동선·모선희(2011). 국가인권위원회 판정사례를 통해 살펴본 고용상 연령차별의 요인탐구. 노인복지연구, 51, 145-164.
- 15) 김미혜·신경림·최혜경·강미선(2006).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후 삶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6(1), 91-104.

- 16) 김상호·김형수(2003). 빈곤노인의 생산적 고령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3(3), 223-237.
- 17) 김성훈(2003). 취업자의 사회 연결망 활용에 대한 영향 요인 연구. 노동경제논집, 12, 209-230.
- 18) 김수정·김정석(2011). 노인 부부가구의 빈곤: 성과 직업력의 효과. 가족과 문화, 23(3), 63-91.
- 19) 김안나(2007). 한국의 사회적 배제 실태에 관한 실증적 연구. 사회이론, 32, 227-256.
- 20) 김양수(2007). 고령자 취업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21) 김종향(2011). 사회적 관계망 요인이 고령자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 임상사회사업연구, 8(2), 47-70.
- 22) 김태현·김동배·김미혜·이영진·김애순(1998).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8(1), 150-169.
- 23) 김화순(2009).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에 미치는 요인 연구: 인적자본 및 노동시장구조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4) 김혜연·홍백의(2009). 여성의 소득불평등 변화 경향 및 원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0(1), 87-114.
- 25) 라진구(2009). 고령자 재취업 및 직종선택의 결정요인과 정책에 관한 연구-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26) 문영미(2005). 고령자 취업영향요인 분석. 임상사회사업연구, 2(2), 77-93.
- 27) 박능후(2005). 한국 노인빈곤의 동태성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35, 159-192.
- 28) 박능후·송미영(2006). 노인가구 유형별 빈곤 상태 변화에 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31, 7-26.
- 29) 박미은(2004).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과 일반 노인의 노인학대 관련요인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6(2), 93-119.
- 30) 박세경·김형용·강혜규·박소현(2008).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사회자본 형성의 실태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31) 박점숙(2004). 퇴직 노인들의 재취업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32) 박정숙·이혜란(2003). 일반노인과 저소득층 노인의 건강증진행위와 지각된 건강상태 비교.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4(1), 157-166.
- 33) 박현순·나동석(2009). 한부모여성고 기혼여성의 취업관련요인 비교연구: 고정된 변수(fixed variables)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6(4), 263-290.
- 3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35) 배성우·손지아·박순미(2008). 빈곤노인가구의 특성과 빈곤탈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복지연구, 42, 291-318.
- 36) 백선희(2011). 중고령자의 사회자본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7) 백학영(2006). 저소득 독거노인의 빈곤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사회복지연구, 31, 5-39.
- 38) _____(2010). 빈곤지위와 가구유형에 따른 노인가구의 소비특성 차이 분석. 한국노년학, 30(3), 911-931.
- 39)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8). 서울시 청년실업 변화 추이. 서울경제, 2월호.
- 40) 서지원(2009).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수준 결정요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3), 59-84.
- 41) 석상훈(2009). 노인빈곤의 동태적 분석. 사회보장연구, 25(4), 77-99.
- 42) 석상훈·김현수(2012). 노인빈곤의 실태와 결

- 정요인 분석-생애 근로이력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재정학연구, 5(3), 99-124.
- 43) 성준모(2011).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스트레스 요인과 우울의 중단적 인과관계. 한국사회복지학, 64(4), 285-310.
- 44) 성지미·안주엽(2006). 중고령자 취업 결정요인. 노동정책연구, 6(1), 39-74.
- 45) 손지아·박순미(2011). 취업노인의 특성 연구: 취업상태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20(2), 285-298.
- 46) 세계일보(2012). 노인 일자리 구하기 갈수록 어려워진다. 2012. 6. 28. 12면.
- 47) 신동균(2009). 중고령 남성 근로자들의 점진적 은퇴행위에 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9(2), 1-41.
- 48) 신현구(2008).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와 성과. 한양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49) 심영호(2010). 우리나라 고령자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북대학교 과학기술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50) 엄동욱(2008). 중고령자의 취업결정요인-국민노후보장패널 1차년도 자료를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8(3), 17-38.
- 51) 여성가족부(2012).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2012년도 시행계획. 여성가족부.
- 52) 오인근(2009). 저소득 노인들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무망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관 서비스이용의 조절효과. 노인복지연구, 44, 111-130.
- 53) 오인근·오영삼·김명일(2009). 여성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구-건강증진행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4(1), 113-136.
- 54) 이남경(2010). 고령구직자와 고용주의 고령자 취업에 대한 인식의 차이 연구: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55) 이데일리(2013). 은퇴자, 시니어 창업스쿨에서 인생2막 연다. 2013. 4. 3.
- 56) 이미순(2006).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57) 이미진, 이용우(2008). 사별과 여성노인의 경제적 상태에 대한 중단적 연구. 사회복지연구, 24(3), 117-143.
- 58) 이성균(2006). 한국 자영업자의 사회적 자본과 소득수준. 한국사회학, 40(5), 178-206.
- 59) 이성은(2012). 만성질환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경제활동참여의 조절효과.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0(1), 234-262.
- 60) 이소정(2012). 노인의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92, 17-25.
- 61) 이승호·구인회(20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적절성 평가. 보건사회연구, 30(1), 29-61.
- 62) 이재영(2006). 고령인력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령자취업알선센터 내방자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63) 이창호(2005). 여성노인의 취업형태 및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한국노동패널조사(KLIPS)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노인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64) 이해리(2005). 여성노인 노동력의 배제와 통합에 대한 고찰. 여성학논집, 22(2), 35-69.
- 65) 장경은(2009). 빈곤노인의 노화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4), 355-380.
- 66) 장수지(2010). 노년기 사회적 관계망의 구조적, 기능적 측면과 주관적 삶의 질의 관계: 전후기노인 및 성별에 따른 비교를 중심으로. 경성통일논총, 26(1), 75-100.
- 67) 정순돌(2004). 저소득 노인의 사회적 지원망 특성-연결거리의 분석을 통한 탐색적 연구.

- 노인복지연구, 24, 7-29.
- 68) 정순돌·문진영·김성원(2010). 고령은퇴자의 사회적 관계망과 은퇴만족도 관계 연구. 한국노년학, 30(4), 1145-1161.
- 69) 정순돌·이미우(2012). 우리나라, 미국, 네덜란드의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법: 연령차별의 개념과 적용대상. 보건사회연구, 32(2), 118-142.
- 70) 최현수·류연규(2003). 우리나라 노인빈곤 동향 및 빈곤구성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 23(3), 143-160.
- 71) 최희경(2004). 공공부조 수급에서 제외된 빈곤노인의 현황과 특성. 한국사회복지학, 56(2), 237-259.
- 72) 통계청(2008). KOSIS 국가통계포털, 소득분배지표. <http://kosis.kr/wnsearch/totalSearch.jsp>
- 73) ____ (2011a). 2011 고령자통계. 통계청.
- 74) ____ (2011b). 경제활동인구연보. 통계청. http://kosis.kr/ups/ups_01List01.jsp?grp_no=1003&pubcode=WA&type=F
- 75) ____ (2012). 2012 고령자통계. 통계청.
- 76) 하석철(2012). 부모-자녀간 소득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수혜자인 부모와 제공자인 자녀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4(2), 101-136.
- 77) 하지경(2010). 노인가구의 소비패턴분석: 노인빈곤가구와 노인비빈곤가구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소비자 가족학과 석사학위논문.
- 78) 한국노동연구원(2009).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2008년 제2차 기본조사 사용자안내서. 한국노동연구원.
- 79)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1). 노인일자리 통계동향.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80) 헤럴드경제(2012). ‘노후난민’ 공포 엄습…한국 베이비부머, 日단카이 ‘반면교사’ 로…’. 2012. 8. 10. 8면.
- 81) 황남희·정주연(2009). 중고령자의 소득수준별 사적이전 비교분석. 한국재정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22.
- 82) 황진수·최성재·김태현·이가옥·유성호·변재관(2001). 고령자 취업 활성화 방안. 한국노년학, 21(1), 93-118.
- 83) 황희숙·김윤재(2011). 고령자의 재취업에 미치는 요인 분석 연구. 한국국정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0, 87-109.
- 84) 허준수(2006). 도시지역 미취업 노인들의 취업의사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8(1), 291-318.
- 85) Alavinia, S.M. & Burdorf, A.(2008). Unemployment and retirement and ill-health: A cross-sectional analysis across European countries. International Archive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ealth, 82, 39-45.
- 86) Allison, P.D.(1999). Logistic regression using the SAS system: Theory and application. Cary, NC: SAS Institute Inc.
- 87) Antonucci, C.(1985). Personal characteristics social support, and social behavior. In R. H. Binstock & E. Shanas(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94-129,
- 88) Becker, G.S.(1964).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3rd Ed, 1993).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89) Burt, R.S.(1997). The contingent value of social capital.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2(2), 339-365.
- 90) Copeland, C.(2010).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s: The population age 55 and older, 2008(February 2010). EBRI Notes, 31(2). <http://ssrn.com/abstract=1557288>
- 91) Deary, I.J., Corley, J., Gow, A.J., Harris, S.E., Houlihan, L.M., Marioni, R.E., Penke,

- L., Rafnsson, S.B. & Starr, J.M.(2009). Age-associated cognitive decline. *British Medical Bulletin*, 92, 135-152.
- 92) Edwards, J.(2002). Dementia and depression in older people. *IPA Bulletin*, 19(2). http://www.ipa-online.org/ipaonlinev3/publications/bulletinarchive/dem_dep.asp.
- 93) Hurd, M.(1990). Research on the elderly: Economic status, retirement, and consumption and saving.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28(2), 565-637.
- 94) Lin, N.(1999). Building a network theory of social capital. *Connections*, 22(1), 28-51.
- 95) OECD(2008). OECD Income-Distribution Database,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5(3), 140.
- 96) O'Reilly, P.(1988). Methodological issues in social support and social network research. *Social Science and Medicine*, 26, 863-873.
- 97) Reingold, D.A.(1999). Social networks and the employment problem of the urban poor. *Urban Studies*, 36(11), 1907-1932.
- 98) Schultz, T.W.(1961).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merican Economic Review*, 51, 1-17.
- 99) Warr, P.(1993). In what circumstances does job performance vary with age? *European Work and Organizational Psychologist*, 3(3), 237-249.

- 투 고 일 : 2013년 7월 1일
- 심 사 일 : 2013년 7월 2일
- 심사완료일 : 2013년 7월 31일